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해외시찰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의회
http://www.icouncil.go.kr/
(건 설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시찰 목적 ····· 1

Ⅱ. 시찰 개요 ····· 2

Ⅲ. 주요 일정 ····· 6

Ⅳ. 주요 활동내용 ····· 7

□ 해밀턴시의회(시청) 방문 ····· 7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방문 ····· 13

□ 브리토마트역 (Britomart Station) 방문 ····· 18

□ 윈야드 쿼터 (Wynyard Quarter) 시찰 ····· 20

□ 비아덕트 하버 (Viaduct Harbour) 시찰 ····· 27

□ 오클랜드 어시장 (Auckland Fish Market) 시찰 ····· 28

□ 와이토모 동굴 (Waitomo Caves) 시찰 ····· 30

□ 레드우드 수목원 (Redwood Treewalk) 시찰 ····· 31

□ 헤리티지 팜 (Heritage farm) 시찰 ····· 33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Fiordland National Park) 방문자센터 방문 및 밀포드 사운드 (Milford Sounds) 시찰 ····· 34

□ 마운트 쿡 국립공원 (Mount Cook National Park) 시찰 ····· 36

□ 크롬웰 (Crom Well) 과일마을 시찰 ····· 37

□ 크라이스트처치 트램(Christchurch Tram) 체험 ····· 37

□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Christchurch Cathedral) 시찰 ····· 39

□ 크라이스트처치 공공주택단지 방문·시찰 ····· 40

Ⅴ. 시사점 및 정책제언 ····· 44

□ 교통 분야 ····· 44

□ 도시재생 분야 ····· 47

□ 투자유치 분야 ····· 49

□ 관광랜드마크 분야 ····· 49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해외시찰 결과 보고

Ⅰ 시찰 목적

○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비아덕트 하버(Viaduct Harbour), 오클랜드 어시장** 등을 방문하여 산업시설이 밀집한 노후된 항구를 여가·휴양공간으로 변화시킨 도시재생사례 및 부두, 항만 등을 개조해 문화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수집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착안사항 모색**

○ **해밀턴시청, 브리토마트역 방문**과 **크라이스트처치 트램 등 현지 교통체험**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활용방안 발굴**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시장 분위기와 글로벌 기업 동향 파악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선제적 대응**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밀포드 사운드 등 답사**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발굴** 및 **헤리티지 팜, 레드우드 수목원 등 답사**를 통해 **강화군 등 관내 농장, 수목원 연계 관광 착안사항 모색 및 랜드마크 벤치마킹**

☛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 도입 및 대안을 모색하고,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Ⅱ 시찰 개요

○ (출장기간) 2023. 4. 13.(목) ~ 4. 20.(목) 【6박 8일】

○ (출장국가) 뉴질랜드

○ (출장인원) 9명(건설교통위원회 위원 6명, 전문위원실 직원 3명)

* 인천도시공사 4명, 인천교통공사 2명(해밀턴시청 방문 및 현장 답사 동행)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연수단장)	임 관 만	시 의 원
2	〃	위 원	이 인 교	〃
3	〃	위 원	김 종 배	〃
4	〃	위 원	박 종 혁	〃
5	〃	위 원	유 승 분	〃
6	〃	위 원	이 용 창	〃
7	〃	수석전문위원	정 이 섭	전문위원실
8	〃	주 무 관	나 성 원	〃
9	〃	주 무 관	채 옥 남	〃

<< 시찰도시 >>



방문 국가 및 도시 주요현황

▢ 뉴질랜드



- ㅇ 수도: 웰링턴
- ㅇ 면적: 2,677만 1천ha(2020. 국토교통부)
- ㅇ 인구: 약 522만 8,100명(2023. 통계청)
- ㅇ 언어: 영어, 마오리어
- ㅇ 민족: 유럽계 74.0%, 마오리족 14.9%, 아시아계 11.8%, 태평양 도서 주민 7.4%
- ㅇ GDP: 2,499억 9,151만 달러(2021. 한국은행)
- ㅇ 1인당 GDP: 48,801.7 달러(2021.)
- ㅇ 종교: 국교 없음
- ㅇ 대한 수교현황: 1962. 3. 26.
- ㅇ 재외국민 수: 21,958명(2021.)
- ㅇ 특 징

- 낙농업 위주의 국가인 뉴질랜드는 일부 국가에 한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높음
- 최근 최대교역국이 인접 국가인 호주에서 중국으로 바뀜
  - ▸ 낙농 및 목재 수출과 전자·가구류 수입 활성화가 요인
  - ▸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축산가공, 육류, 목재, 알루미늄 등
- 근래 수산업과 임업식품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두드러짐
  - ▸ 중국: 유제품 공장 및 낙농장 등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 ▸ 일본: 80년대부터 뉴질랜드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 진출
- 테스트 베드 최적화 시장: 기업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한 뉴질랜드의 기업 친화 정책 추진으로, 북미나 유럽 진출 전에 기업을 설립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각광. LG CNS가 웰링턴 시의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최근 그리스 등 다른 해외 시장으로 진출함
  - ▸ 영어권 국가, 국제표준 활용
  - ▸ 다양한 민족·문화 특성 보유

□ 오클랜드 (Auckland)

ㅇ 위　치 :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항구 도시
ㅇ 면　적 : 482.9㎢
ㅇ 인　구 : 169.5만 명(2018. 기준)
ㅇ 특　징
- 뉴질랜드 최대도시이자 경제수도로써 농업, 공산품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무역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기업과 연계 방안 검토 가능
- 뉴질랜드 전체 국민의 33%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번화한 광역권이지만 면적상으로는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작은 지방으로, 뉴질랜드의 소매, 금융, 상업의 중심지

□ 로토루아 (Rotorua)

ㅇ 위　치 :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도시로, 오클랜드의 남동쪽 230km 상에 위치
ㅇ 면　적 : 2,614.9㎢
ㅇ 인　구 : 72,500명(2018.12. 기준)
ㅇ 특　징
- 화산과 지열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마오리족 문화의 중심지로써 뉴질랜드 최대 관광업 중심지
- 와이아리키 기술연구소 등 많은 대학의 대규모 연구소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통음식 항이(hangi), 마오리족 공연, 조각품, 온천욕 등으로 유명

□ 해밀턴 (Hamilton)

ㅇ 위　치 : 뉴질랜드 북섬 중앙부
ㅇ 면　적 : 98㎢
ㅇ 인　구 : 148,200명(2012. 기준)

ㅇ 특 징
-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1945년 시가 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인 와이카토 강(Waikato R.)이 도심의 중앙을 흐르고 있음
- 지리적으로 남(南)오클랜드 지방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교통의 요지로 전형적인 농촌도시
- 주요 산업은 농업가공, 농업기계, 플라스틱, 피혁 등

□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ㅇ 위 치 : 뉴질랜드 남섬 동쪽에 위치한 캔터버리 지방의 주요도시
ㅇ 면 적 : 1,426㎢
ㅇ 인 구 : 392,100명(2021. 기준)
ㅇ 특 징
- 뉴질랜드 제2의 도시로 뉴질랜드 남섬의 관광·경제·정치·문화의 중심지
- 식물원과 해글리 공원 등 넓고 아름다운 정원 도시
- 풍부한 지역문화 유산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재건과 창조, 혁신적인 도시

□ 퀸스타운 (Queenstown)

ㅇ 위 치 : 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호수인 와카티푸 주변에 위치한
뉴질랜드 남섬 남부 정중앙에 있는 도시
ㅇ 특 징
- 인구 8천의 소규모 도시지만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하고 레저를 즐기러 오는 여행객들의 거점으로 유명
- 트레킹, 등반, 제트보트, 번지점프, 스카이 다이빙 등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달

Ⅲ 주요 일정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4. 13. (목)	22:25~		▪ 인천 출발	
4. 14. (금)	~12:40 14:00~19:00	오클랜드	▪ 오클랜드 도착 ▪ 브리토마트역 방문 - 오클랜드 전철 4개 노선이 발착하는 도시교통의 중심지 시찰을 통해 교통인프라 자료수집 ▪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비아덕트 하버(Viaduct Harbour), 오클랜드 어시장 시찰 - 산업시설이 밀집한 노후된 항구를 여가·휴양공간으로 변화시킨 도시재생 사례 수집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착안사항 모색 ▪ 오클랜드의 도시랜드마크 시찰 - 스카이타워(Sky Tower) 등	
4. 15. (토)	09:00~11:40 11:40~17:00 17:00~19:00	와이토모 로토루아	▪ 오클랜드 → 와이토모 이동 ▪ 와이토모의 관광랜드마크 시찰 및 관광 착안사항 모색 - 와이토모 동굴 및 동굴박물관 ▪ 와이토모 → 로토루아 이동	
4. 16. (일)	09:00~18:00	로토루아	▪ 레드우드 수목원, 헤리티지 팜 시찰 - 농장 및 수목원 연계 관광 활용방안 모색	
4. 17. (월)	08:00~09:30 09:30~11:30 11:30~13:00 13:30~15:30 17:40~19:25	해밀턴 오클랜드 퀸스타운	▪ 로토루아 → 해밀턴 이동 ▪ 해밀턴시의회(시청) 방문 - 우수 교통정책 및 도시 프로젝트 현황 조사 ▪ 해밀턴 → 오클랜드 이동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방문 - 현지 시장 분위기 및 글로벌 기업 동향 파악 ▪ 오클랜드 ✈ 퀸스타운 이동	
4. 18. (화)	08:00~18:00	퀸스타운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밀포드 사운드 등 시찰 -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방안 발굴	
4. 19. (수)	08:00~10:00 10:00~14:00 14:00~17:30 19:00~20:25	퀸스타운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 마운트 쿡 국립공원, 크롬웰 과일마을 시찰 - 공원 및 농장 연계 관광 착안사항 모색 ▪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 크라이스트처치 트램 등 현지 교통 체험 -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 강구 ▪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시찰 - 지진재난 피해건물 보존 사례 자료수집 ▪ 크라이스트처치 공공주택단지 방문·시찰 ▪ 크라이스트처치 ✈ 오클랜드 이동	
4. 20. (목)	11:55~19:55	인 천	▪ 오클랜드 ✈ 인천	

Ⅳ 주요 활동내용

□ 해밀턴시의회(시청) 방문

- (명칭) Hamilton City Council
- (주소) 260 Anglesea St, Hamilton, New Zealand, 3240
- (연락처) +64 7 838 6699
- (홈페이지) https://hamilton.govt.nz

○ 방문일시: 2023. 4. 17.(월) 09:30 ~ 11:30

○ 참 석 자



○ 내 용

– **(해밀턴시 의장 환영 말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수변도시 해밀턴에 오신 것을 환영함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도 저희로부터 배워 가시기를 바람

・먼저, 해밀턴시의회 고든 나이두(Gordon Naidoo) 도시교통과장(City Transport Unit Director)이 해밀턴의 교통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음. 예상되는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밀턴 교통과 인프라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몇가지 인사이트를 담은 내용임

・저희 교통팀의 업무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꽤나 도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음. 주민의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기후변화, 배출량 저감 목표 등의 이슈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다음은, 해밀턴시의회 틸리 멀콧(Tilly Murcott) 도심프로그램매니저(Central City Programme Manager)의 발표가 있겠음. 틸리(Tilly)는 도심개발을 총괄하는데, 도심부에 숨결을 불어넣고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실 수 있음

・활기차고 맥박이 뛰는 듯한 도심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집중하는데 중요함. 그래서 틸리(Tilly)는 이런 긍정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과 단체, 주민모임 등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해나가고 있음

・해밀턴 시장으로서, 저는 우리의 지식과 시의 귀중한 국제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배우고 각자의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기회에 감사한 마음임

– (인천시 건설교통위원장 인사 말씀)

・우리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림

・오늘 우리는 뉴질랜드의 유구한 역사와 끈끈한 다민족 공동체의 유대감이 존중받는 도시, 이 곳 해밀턴에서 만났음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인천과 해밀턴, 해밀턴과 인천 양 의회간의 우호 협력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의회외교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교통, 도시재생, 시민주거복리 증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원활한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함

・또한, 존경하는 해밀턴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고대하며, 의원님들의 안녕과 건승을 축원함

– (해밀턴시 교통 전략)

■ **해밀턴시의 교통 전략**을 Access Hamilton라고 부름.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접근가능하며 스마트한 방식으로 사람과 장소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함

◇ 장기 전략 : 30년

◇ 역사 : 1996년에 개발되었으며, 2005년에 첫 조정되고 이후 2010년과 2022년에 여러 번 업데이트되어 변화하는 운송에 대한 비전 조정
⇒ 성장하는 도시

■ **해밀턴시 교통 전략 주요 내용**

- 해밀턴을 중심으로 700km에 달하는 도로가 있으며, 오클랜드에 달하는 교통량 수송량은 연간 4%씩 증가추세임. 많은 교통수송량을 감당하고 이동이 편리한 체계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와 노선변경 등 교통수송망을 확립 중에 있음
- 자전거, 보행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0개의 교량, 1,050km에 달하는 보행도로, 17,000개의 교통신호체계, LED가로등 2만개 보유
- 스쿨존 속도제한, 주차 사인, CCTV 카메라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2020/21년 매년 10km 도로 네트워크 증가함
- 해밀턴시의 교통체계는 지속 성장을 추구하며, 18만 인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송망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도로 형성에도 노력
- (비전 제로) 교통 네트워크에서 사망과 중상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

■ **해밀턴시의 교통 비전**

- 돌아다니기 쉬운 도시로 만든다.
- 안전하고 믿을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추구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교통 수단에 적합한 교통시스템을 갖춘다.
- 해밀턴 경계 내에 있는 도로축과 교통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다한다.

■ **Access Hamilton(해밀턴시 교통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

- 안전한 교통 시스템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 포용성 / 기후변화 / 환경 책임성 / 질적 성장과 도시 개발 지원 / 비즈니스 활성화와 경제 성장 / 다양한 이동 수단

– (해밀턴시 도심 전략)

■ **사람들이 즐겨찾는 도심**

- 173 헥타르에 달하는 해밀턴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지역이며, 도심은 동쪽으로는 Ruakura, 북쪽으로는 Te Rapa와 Horotiu사이에 강력한 경제축 개발로 각광받고 있음
- 도심부에는 앞으로 10년간 1만여명을 위해 약 4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성공한다면, 도심부의 주거공간 성장을 가속화할수 있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공간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가 필요하게 될 것임

- 지난 10년 동안, 도시 전체에 집약도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음. 현재, 도시의 성장 절반가량이 infi Ⅱ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 이는 해밀턴이 메트로 센터로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기존 및 신규 주민들도 컴팩트한 도시 생활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기존 도시 지역의 밀집화를 통해 성장의 70%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도심지역에 사는 주민 수를 늘리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주택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불리도록 만들고자 함. 도심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혁신이 촉진되고 지역의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역할을 하는 코스모폴리탄 허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
- 이런 목표를 위해 도심 인프라 투자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음. 지역 재개발 지원을 통해 고밀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임. 고밀도 성장이란 다양한 주택 형태, 편의시설이 풍부한 환경, 일자리와 서비스, 공원, 녹지 및 각종 커뮤니티 시설에 접근성이 좋은 것을 의미함. 앞으로 단계별 접근을 통해 도심과 가까운 주변의 교외지역에서도 집약도를 가능하게 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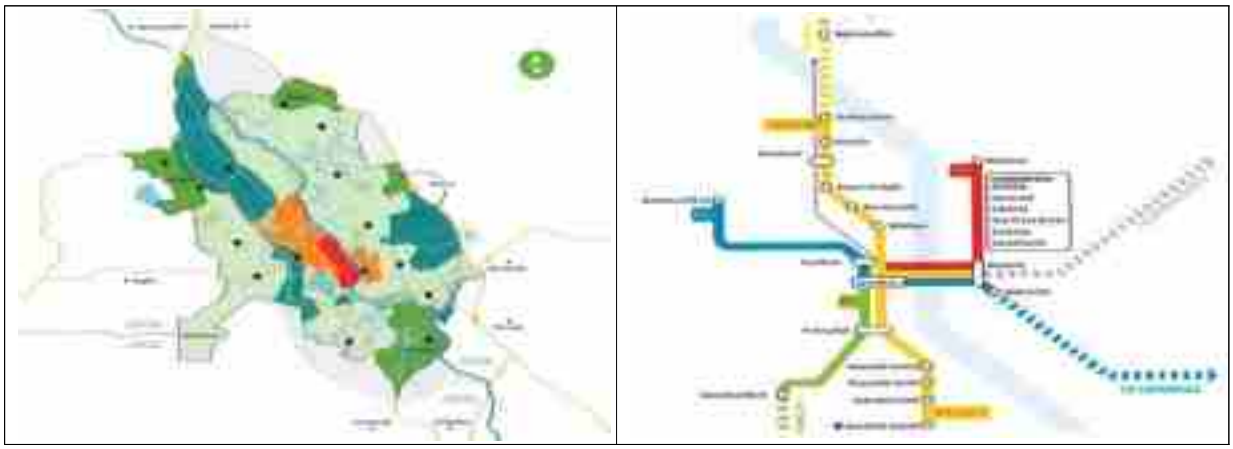
■ **관광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도심**

- GDP 28억 달러 / 일자리 20,727개 / 사업 2,529달러 / 소매 188,566㎡, 사무공간 157,550㎡
- 도심부는 소매 및 사무공간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있음
- 도심부 투자의 장점은 비단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하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
- 도심부는 Waikato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계속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과 상업 활동을 위한 허브로 만들고자 함. 스마트한 인재와 비즈니스가 모이는 곳으로, 전문직, 과학기술 산업, 글로벌 기업과 지역의 신흥 비즈니스와 기업들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음. 은행업, 금융, 관광 분야 등 많은 주요 기업들이 도심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음
- 공공・민간 투자 25억 달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연간 1,800개 일자리와 연 GDP 1억 4천만 달러를 창출. NPS-UD를 직접 실현했으며, 이는 (Future Proof 하에 만들어진) 정부의 도시성장 어젠다 파트너십에 가시적인 약속을 의미하기도 함. 이 파트너십으로 2020년 내각이 채택한 해밀턴 메트로폴리탄 공간 계획과 오클랜드 코리더 플랜에 해밀턴이 포함되었음

■ **번영하는 경제: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도심**

・도심부 확장은 뉴질랜드 도시개발 국가 정책 성명(NPS-ND)에 대한 해밀턴 의회의 대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며, 해밀턴 도시성장전략(HUGS)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함. 앞으로 10년 동안 신규 주거 및 상업 발전에 20억 달러 이상이 공급되어, 신규주택 4,000채와 상업용지 305,000㎡가 제공될 예정

・지난 11월 IAF 자금 1억 5,060만 달러를 통해 Active Modes river Crossing 등 도심부 확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됨. Active Modes river Crossing은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주거와 고용 지점을 교육과 함께 연결하는 중요 링크로 도심부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도심부개혁계획결과에 영향을 줄 것임



※ 도심에 들어설 예정

▸ ACC Regional Hub 2023 / VOTR example / Waikato Regional Theatre 2024 / NZ Blood Building 2023 / Union Square 2025 / Walato Regional Theatre

– (주요 질의답변)

■ Q) 현재 운용중인 교통량분석 시스템과 운영주체는 ?

A) AI를 이용하여 교통량분석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나 주운용자는 해밀턴 시에서 수행하며 러시아워대의 교통체계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교통시스템에 반영중임

■ Q) 뉴질랜드의 탄소중립화선언과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야간에 도시 가로등의 조도를 낮춰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하는 정책은 매우 감명 깊음

■ Q) 인천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가 있음. 해밀턴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A) 해밀턴에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향후 발생 시 대중교통지원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택 보유세(재산세)로 세수 확보하며, 정부의 투자유치 방안 마련도 대비하고 있음

- Q) 해밀턴시장님의 시정운영 최우선의 정책은?

  A) 해밀턴시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보급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

○ 관련사진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방문

- (주소) Level 16, Huawei Centre, 120 Albert Street, Auckland 1010
- (연락처) +64 9 373 5792
-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
- (주요업무) 마케팅, 국내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온라인상담회, 투자진출,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디지털마케팅, K MOVE 해외취업지원 등

○ 방문일시: 2023. 4. 17.(월) 13:30 ~ 15:30

○ 참 석 자: 임재걸 관장

○ 내　　용

– (뉴질랜드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백만명)	475	482	492	495	502	510	520	520
명목 GDP(십억 US달러)	186	203	209	211	210	248	257	276
1인당 명목GDP(US달러)	39,400	42,280	42,780	42,330	41,430	48,420	49,850	52,970
GDP성장률(%)	4	3.5	3.4	2.9	-2.1	5.6	2.3	1.7
실업률(%)	5.2	4.7	4.3	4.1	4.6	3.8	3.3	3.3
소비자물가지수(CPI)	1.3	1.6	1.9	1.9	1.4	3.9	7.2	3.8

주: '23 년 EIU 전망치 / 자료원 : IMF, EIU

■ 경제 개황

○ **(GDP) 뉴질랜드 GDP 성장률 '22년 2.3%, '23년 1~2% 사이 전망**
- OECD는 뉴질랜드가 모기지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GDP 성장률 1.0% 예상 (EIU: 1.4% 전망)

○ **(실업률) '22년 실업률 3.1%로 역대 최저 수준**
- 뉴질랜드는 2022년 한 해 동안 노동력 참여율과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로 증가(각 71.7%, 69.3%)하였고 실업률은 2022년 1분기에 집계 이래 최저치 3.1% 를 기록한 이후 낮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음(실업률 2.3분기: 3.3%, 4분기: 3.4%)

○ **(물가지수) '22년 4분기 물가 상승률 7.2%**
- 2022년 2분기에 역대 최고 물가 상승률인 7.3% 기록한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물가상승률 3.4분기: 7.2%)

○ **(기준금리) '23년 4월 50bp 추가 인상, 현재 공식기준금리 5.25%**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대역 1~3% 위해 통화긴축 지속 전망

■ 산업 구조

○ (GDP비중) 1차 산업(7%), 2차 산업(19%), 3차 산업(66%), 기타(8%)

- 1차 산업은 무역 수출의 80% 이상 차지하며, 1차 산업부는 2023년(6월말기준)에 '식품 및 섬유분야' 수출이 NZD 55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전년 대비 4% 증가)

– (뉴질랜드 교역 동향)

■ 연간 교역 동향

○ 교역 규모는 1990년 이후 양방향 교역이 4배 이상 지속 성장함.

○ '22년 양국 교역액은 53억불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역대 최고 수준)**

<최근 5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년도	한→뉴 수출	한→뉴 수입	무역수지
2018년	1,744	1,380	364
2019년	1,392	1,300	92
2020년	1,463	1,182	281
2021년	1,924	1,541	383
2022년	3,490	1,856	1634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한국의 對뉴질랜드 상위 수출 품목: 경유, 휘발유, 승용차

  * 경유, '22년 수출 약 14억불로 '21년 대비 280% 증가 등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 견인**

- 한국의 對뉴질랜드 상위 수입 품목: 낙농품, 원목, 육류 등

○ **수출 기업 동향**

- 중소·중견기업 중심 수출 기업 지속 증가 추세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기업	166	153	144	145	141
중소·중견기업	2,181	2,218	2,255	2,413	2,370

<對 22년 뉴질랜드 수출기업 통계> (단위: US$ 백만달러,%)

기업구분	수출기업수	총수출기업 대비 비중	수출액	對뉴질랜드 비중	총수출액 대비 비중
대기업	141.00	17.78	2775.04	82.00	0.65
중견기업	232.00	11.34	301.16	8.90	0.25
중소기업	1852.00	2.64	273.20	8.07	0.24
기타기업	11.00	3.01	6.22	0.18	1.00
미분류 기업	275.00	1.17	28.68	0.85	0.17
합계	2511.00	2.60	3384.30	100.00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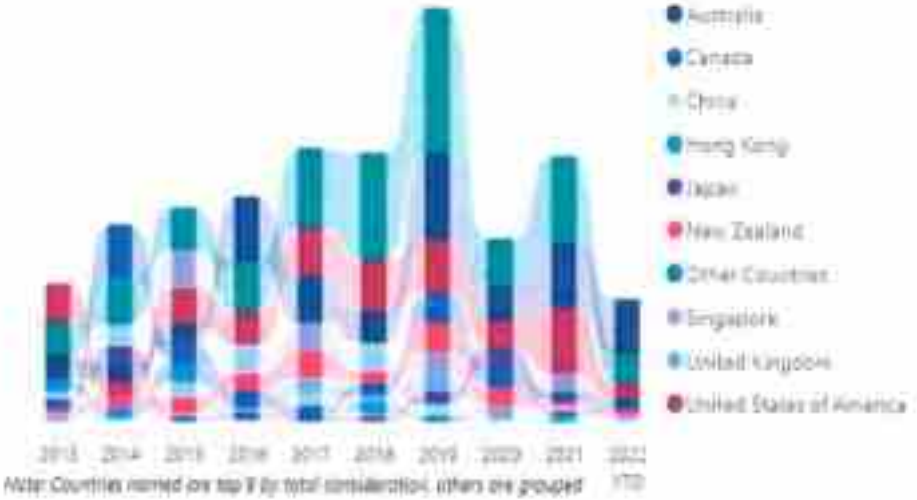
자료: KOTRA Tri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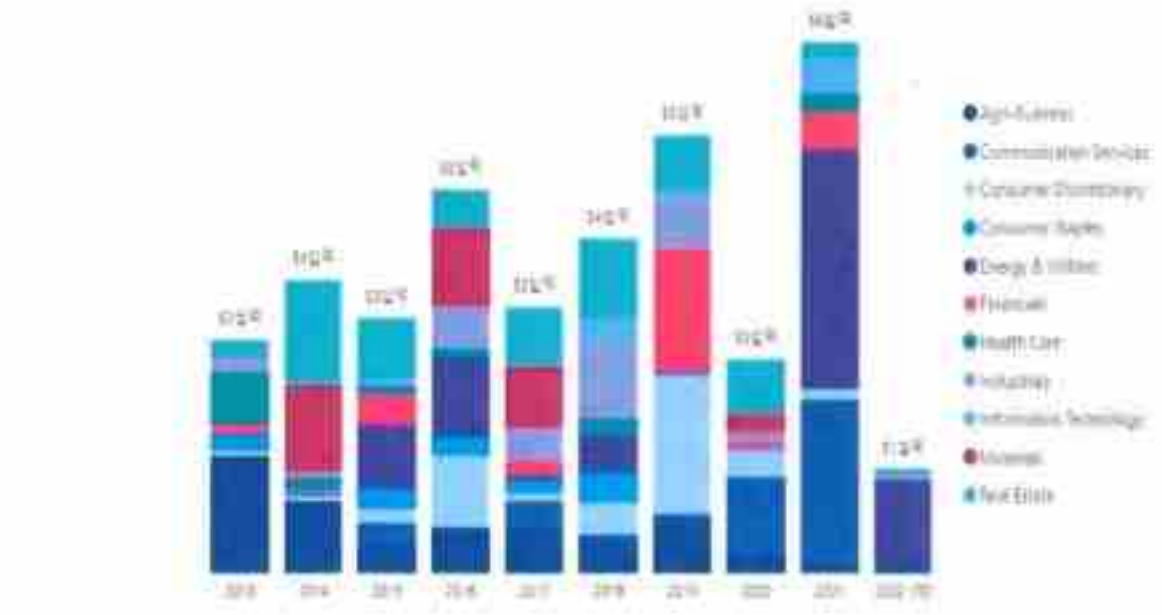
– (뉴질랜드 투자 동향)

■ 對 뉴질랜드 최대 투자국은 호주와 미국

○ 뉴질랜드의 지난 3년간 최대 투자국은 호주와 미국이며, 최근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쪽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뉴질랜드 FDI 외국인 직접투자 연간 현황>





자료: https://kpmg.com

<한국의 對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규모>

한국의 對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백만불,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1332	경유	372	56	1415	280.1
2	1331	휘발유	429	77	720	67.8
3	7411	승용차	268	39.5	235	-12.3
4	1333	제트유및등유	16	-35.7	172	968.1
5	7414	전기자동차	72	802.3	103	43.8
		총계	**1924**	**31.5**	**3490**	**81.4**

한국의 對 뉴질랜드 품목별 수입 규모 (단위:백만불,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0243	낙농품	260	13.4	328	26.1
2	0311	원목	256	28.6	265	3.2
3	6211	알루늄지 및 스크랩	205	61.8	258	25.9
4	0221	가축육류	141	42.7	187	32.9
5	0116	과실류	152	31.1	161	6.1
		총계	**1541**	**30.4**	**1856**	**20.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출처: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주요 질의답변)

- Q) 청년인력들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코트라 지원방안은?

  A) 취업박람회 개최, 온라인 상담 등 다방면으로 노력

- Q) 뉴질랜드 내 청년인력의 취업관리 현황은?

  A) 연간 50명 정도 취업시키고 있음

- Q) 코트라의 목적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원인데 어떠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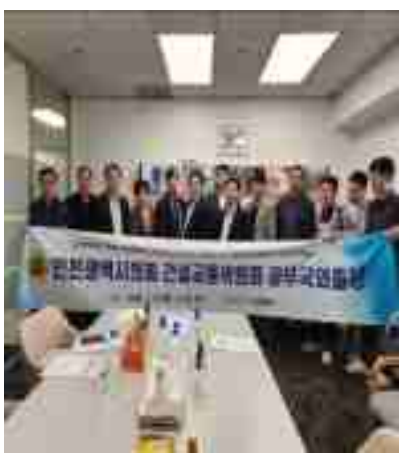
  A) 코트라에서 주도적으로 뉴질랜드 내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업체에 소개하거나 업체에서 사업문의가 오면 지원해 주는 경우 등 양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음

- Q) 인천에 있는 소규모 공장이나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등 좋은 아이템들을 연결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이나 공장들이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A) 현재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27개사가 있음. 직원 한명당 9개씩 담당을 해 바이어도 만나주고, 시장 조사를 해 주는 등 역할을 하고 있음

- Q) 코트라의 지원기업 현황을 보면 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남동공단 등 영세업체에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상공회의소를 통한 홍보 및 기회 부여를 제안함

○ 관련사진





□ 브리토마트역 (Britomart Station) 방문

- (위치) 130 Quay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 오클랜드 도시교통의 중심지로, 오클랜드의 4개 전철 노선이 발착하고, 역 옆에 위치한 정류장에는 노던 버스웨이(BRT 시스템) 종점이 있음
- 역 주변에 오클랜드 대학, 100여개의 기업, 거대한 상업지구 등이 형성된 도시의 중심으로, 이용객 수는 2015/16년 기준으로 연간 약 470만 명에 달함

○ 일　　시: 2023. 4. 14.(금) 14:00 ~ 15:00

○ 내　　용

– (오클랜드 열차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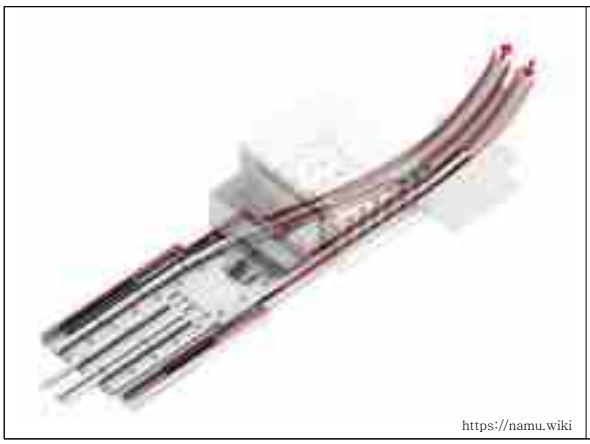


※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1월까지 이스턴 라인의 Britomart–Otahuhu (Sylvia Park 경유)구간이 재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Britomart부터 Otahuhu 구간은 (Newmarket 경유) 서던 라인과 같이 운행 중

– (City Rail Link 건설)

· 브리토마트 역은 현재 Auckland Transport 열차 서비스의 도심 종착역으로, 2015년부터 새로운 시티 레일 링크(City Rail Link) 건설이 브리토마트 역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Chief 우체국 하부, 역의 주요 입구, 그리고 Albert Street를 따라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됨

· 브리토마트역을 기점으로 하여 마운트 에덴 역 까지 30억 뉴질랜드 달러, 3.5km 규모의 시티 레일 링크(City Rail Link)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Britomart를 양방향 통과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로와 플랫폼 배치를 변경할 예정





– (AT Hop[Auckland Transport Hop] 카드 시스템)

· 오클랜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선불 스마트 교통카드로 기차, 페리여객선, 버스에 이용하며, 오클랜드에서는 현금을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HOP 카드이용 시 할인시스템(최소 25%) 제공

※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서울시 교통시스템을 적용하여 NZ버스 교통카드시스템의 웰링턴 교통카드인 <Snapper 스내퍼카드> 도입

※ 2011년부터 오클랜드에 맞는 새로운 전자교통시스템 <AT HOP Card> 시행

· 기차, 버스, 페리 통합 전체 3구역의 구역 요금제 사용





❍ 관련사진



□ 윈야드 쿼터 (Wynyard Quarter) 시찰

■ (위치) Jellicoe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 오클랜드 시와 오클랜드 지역협의회가 협의하여 2011년부터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 일　　시: 2023. 4. 14.(금) 15:00 ~ 16:00

❍ 내　　용

-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안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와이테마타(Waitematā) 항구의 매립지
- 면적은 37만㎡로, 선착장과 창고, 석유 및 액체화학 저장시설 등 산업시설이 노후화된 항구를 주거와 산업적 측면을 결합한 도시로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
- 2011년부터 워터프론트, 도심공원 등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과 주거 및 업무지역 등 복합용도시설(MXD) 개발을 통해 시민 수변공간에서의 문화향유 및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로 조성하고 있음

- (재생 계획 및 사업) 오클랜드 시의회, 유관기관과 시민의견 등 폭넓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클랜드 계획 2050, 도심마스터플랜 2020, 워터프론트계획 2012, 워터프론트 지속가능한 개발프레임워크 2013 등 연계
-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스마트 주택 공급, 윈야드 쿼터 중심의 상업공간 개발
- 재개발은 30년이 걸릴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목표에 도달하면 윈야드 쿼터에는 약 3,000명의 주민과 25,000명의 근로자가 거주할 것으로 추정됨



- (Daldy Street) 재활용 콘트리트 및 골재를 포함한 저영향 우수처리 설계로 도로를 포장하여 거리, 공원 및 인접 개발현장의 유출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회수된 산업자산을 재활용하여 LED 가로등을 설치 운영, 거리의 철교 레일 등 문화유산과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현대식으로 표현하고 있음
- (Jellicoe Street rain gardens)
  - 400m 정도의 대로 주변에는 빗물을 처리하고 수동관개를 제공하기 위해 식물과 빗물정원이 대로 측면에 디자인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바다로의 오염물질 및 퇴적물 배출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기능을 실행하고 있음
  - 윈야드 쿼터는 하수도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서 조경설계와 결합된 새로운 배관을 통해 빗물이 항구로 흐르기 전에 여과시키고 있으며, Amey Daldy Park 근처에는 400,000리터의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특별히 설계된 폐수 펌프장이 있음. 일반 펌프장이 아닌 10.5m 정도 높이의 구조물은 공중 화장실 시설로도 사용되고 있음

<table>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업자산 재활용</td><td colspan="3">철로 흔적 유지, 산업재료(내력기둥) 재활용</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식물 식재 등 빗물 가든으로 활용</td><td colspan="3">산업재료 재활용한 가로등</td></tr>
</table>

- (녹색 건물 및 건축물 등)

- 저층부 상업시설과 고층부 주거시설로 복합된 형태의 주거복합시설군의 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계획 내용상 건축물 높이는 약 15층에서 40층으로 중고밀로, 고밀개발을 통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민에게 보다 넓은 수변공원을 제공하고 있음
- 윈야드 쿼터 내 위치한 건축물에는 신축의 경우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외장을 마감하거나, 해양 이미지를 모티브로 건축물 파사드를 계획하여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음
- 윈야드 쿼터는 저탄소 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성능 녹색 건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기존 건물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여 고성능 친환경 건물은 운영비용 절감, 에너지 및 효율성 향상, 업무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변기세척, 세탁 및 관개와 같은 비음용 용도로 빗물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빗물 수집으로 구영 전체의 물소비를 약 13%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그린스타(Green Star)는 다양한 건물유형 및 기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일련의 평가툴로 건물의 환경속성을 평가하는 포괄적이고 국가적인 자발적인 환경평가 제도임

* 뉴질랜드 그린빌딩위원회(NZGBC)가 건축업체와 협력하여 개발

·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는 에너지 및 물,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합하는 건물과 공공장소를 제공하여 30년이내에 30%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태양광 PV 지붕설치	고밀도 개발 건축물(경관)

- (주택정책 및 현황)

· 1991년 제정된 자원관리법(RMA)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및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도시에서 아파트, 테라스 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고층, 고밀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상가와 근무지, 주민 서비스들이 있는 중심지 등에 인접한 지역의 밀도가 가장 높아짐

· 도시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이 대도심(시티 센터 포함) 지역과 그 주위, 그리고 환승 센터(기차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의 6층 이상 주택에 치중한 반면, 자원관리법은 시내 대부분 주거 지역에서 최고 3층까지 허용하는 중밀도 주거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주택공급의 증가와 타운하우스, 아파트, 기타 소규모 주택과 같은 주택유형의 공급 촉진
- ‣ 도시 및 대도시 지역, 대중교통 허브 근처 또는 메트로폴리탄 센터의 보행 가능한 지역 내에서 고밀도 주택공급으로 저탄소 도시 장려
- ‣ 현장에서 허용되는 주거지의 수를 증가, 다세대 또는 확장된 가족 생활방식을 제공(현재 주택지에 추가적인 유닛 건설 기회 제공)
- ‣ 보다 신속하고 소송이 적은 프로세스를 통해 전반적인 행정비용 절감
- ‣ 현재 사이트당 3층과 3개 주거지의 개발 허용, 측면 야드 장애 감소 등

· 공공주택단지는 전체 Wynyard Quarter 개발사업의 일부분으로, 총 500가구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의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 (HNZC)와 뉴질랜드 시정부의 Auckland Council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음. 지하철, 버스, 트램, 택시 등의 교통편이 편리하여 시내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유명한 레스토랑과 바, 문화 예술 시설도 가까이 위치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아파트 유닛으로 구성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청년층 등 다양한 주거 수요층을 위한 아파트 조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로 설계, 주민편의 생활시설 설치 등

· 2011년부터 시작된 개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완공(1단계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며, 2단계는 2015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완공)

‣부동산 개발업체 Willis Bond & co.와 협력, 신규 주택건설(500가구)
‣25개의 파빌리온, 8개의 타운하우스와 80개의 아파트로 구성
‣상업시설(소매공간)이 있는 51채의 아파트가 132 Halsey Street의 주거 포트폴리스에, 150채의 주택이 30Madden 지역에 추가 건설되었음

· 윈야드 쿼터에 지어진 주택은 최소 7 홈스타 등급을 받아야 하며, 홈스타는 뉴질랜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도구이며 단열, 환기, 따스함 등에 대한 건물코드기준으로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려는 지역의 의지로 보여짐

‣홈스타(Home Star)는 뉴질랜드 주택에 대한 자발적인 환경등급 시스템이며 에너지, 건강 및 안락함, 물, 폐기물, 주택관리 및 주택부지와 같은 범주의 성능 기반으로, 주택을 평가하는데 집의 성능에 따라 1~10개의 별점을 부여
* 아파트, 테라스하우스와 같은 부속주택에 홈스타 등급 부여

· 주택건설은 향후 10년 동안 600 ~ 800개의 아파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설계지침 및 지속가능성 표준에 맞춘 수준 높은 고밀도 주거 설계를 요구하고 탁아소 및 조기 보육교육, 의료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포함


인근 주택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단지





The Antipodean(시내 아파트 및 내부구조)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 오클랜드 지역의 대형 주거지 개발 현황 자료

① Hobsonville Point:

◦ (홈페이지) https://hobsonvillepoint.co.nz/

◦ (위　　치) Waitematā 항구의 북쪽 바다에 있는 반도, 오클랜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

◦ 과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굉음을 내던 Hobsonville Point의 비행장에서 새 주택과 번영하는 커뮤니티의 모든 잘 계획된 도시로 개발, 비행장에서는 총 20ha 중 약 14ha가 주택으로 개발될 예정

◦ 오클랜드의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를 위한 필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1단계는 2017년 102채의 주택이 준공, 2단계는 메가 부지 2, 3, 4에 500채의 신규 주택이 계획, 3단계는 상업, 소매, 커뮤니티 및 주거 요소를 결합한 복합 용도 개발 계획

② Tamaki Regeneration Project:

◦ Tamaki Regeneration Project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동쪽에 위치한 Tamaki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규모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Tamaki 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프로젝트는 15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

◦ Tamaki Redevelopment Company가 주최하고 있으며, Tamaki 지역 내의 공공주택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7,500개의 공공주택을 개선하고 2,500개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Tamaki 지역 내에 거주하는 2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 오클랜드의 도시재생기관(Eke Panuku Develpment Auckland)

- 시의회 통제 조직으로 오클랜드의 도시재생 전문기관
- 약 24억 달러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 순위는 오클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주택, 노인을 위한 주택의 수를 늘리는 것
- (핵심기능) 타운센터의 도시재생과 부동산 및 정박지 관리
  - 도시디자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공간과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 시민을 대신하여 산업현장, 상점, 사무실, 주택, 매립지 등을 관리

※ 참고자료 3. : 오클랜드의 주요 주거복지제도 정리

▣ 조세부담에 의한「고령연금」

◦ (특　　징) 뉴질랜드의 고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로 부담

◦ (수급자격) 자산조사(means test) 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연금 수급

◦ (수 급 액) 독거 노인과 노인부부가 각각 차등 지급

◦ (기　　타)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받음

◦ (비 교 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 지원금액이 낮음

▣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 (특　　징)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국고부담

◦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

◦ 종전까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조정함

◦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같이 무료이며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 부담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 카드를 발급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로 의료혜택이 제공

▣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인/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함

◦ 시설 생활 노인의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 입소비 보조를 받고 있음

◦ 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부터 가정지원 급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

◦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 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피느라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 그 보호자에게 국가가 보호수당을 지급

◦ (비교점)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 시행착오로 많은 제도보완이 필요한 현실임

□ 비아덕트 하버 (Viaduct Harbour) 시찰

■ (위치) Viaduct Harbour Ave, Auckland Central, Auckland

■ 고깃배가 드나들던 항구와 창고의 역할을 수행하던 낡은 산업시설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

❍ 일　　시: 2023. 4. 14.(금) 16:00 ~ 17:00

❍ 내　　용

- 과거에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시멘트 공장, 화물 창고 등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시설물마다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기능 부여

- 2011년 1차 준공을 시작으로 향후 20년 개발계획을 추진 중

- 수변공간 정돈 및 멋스러운 상가 유치로 관광객들의 명소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아지트 역할

-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탈바꿈. 야외 시네마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도서관 등을 조성

- (North Wharf 지역) 상가가 활성화된 2개동 정도의 수변상가는 기존 화물 창고를 개조하여 새로운 단층 건물로 건설되었는데 건물 정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붕 캐노피는 보행자를 위한 쉼터 공간으로 더 확장하여 제공함으로써 유명한 스팟이 되었음

- (Wynyard Crossing)

  · 재개발된 윈야드 쿼터와 해안가의 브리토마트 지역을 연결해주는 현대식 이중 도개교로 보행자 및 자전거용 다리: 너비 6m, 길이 100m

  · 2011년 럭비 월드컵에 맞춰 더 큰 규모의 버스와 트램 등 건설비용을 축소하는 대안으로 건설되었으며, 비아덕트 하버지역으로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다양한 유용한 목적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의 역할도 하고 있음

- 기존의 산업물자를 수송하던 항구의 기능을 살려서 요트 산업 실시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요트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세계 최대 요트 경기인 아메리카 컵도 개최

○ 관련사진



□ 오클랜드 어시장 (Auckland Fish Market) 시찰

■ (위치) 22 Jellicoe Street, Auckland 1062 New Zealand
■ (운영시간) 11:00 ~ 20:00

○ 일　　시: 2023. 4. 14.(금) 17:00 ~ 18:00

○ 내　　용

- 1904년 앨버트 샌포드(Albert Sanford)에 의해 시작된 오클랜드 어시장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뉴질랜드 해산물의 중심지

- 매장 내부는 푸드코트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매장은 작으나 커다란 진열대 안에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함
- AFM 기프트 카드($10 - $500)로 음식과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산물 가게, 식당, 카페, 라이브 바 등 다양하고 깔끔한 매장들이 입점해 있으며, 방학에 페이스페인팅, 부활절 및 크리스마스 등 스페셜 데이 이벤트 개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관련사진



□ 와이토모 동굴 (Waitomo Caves) 시찰

- (위치) 39 Waitomo Village Rd, Waitomo Caves
- (운영시간) 09:00 ~ 17:00

○ 일　　시: 2023. 4. 15.(토) 11:40 ~ 17:00

○ 내　　용

- 개똥벌레 일종인 '반딧불이(GlowWorm/글로우 웜)' 서식지로 유명한 석회암 동굴
- 1887년 현지 마오리 추장 타네 티노라우(Tane Tinorau)가 영국인 측량사 프레드 메이스(Fred Mace)와 함께 처음 탐사했으며, 1906년 정부에서 동굴을 관리하다가 1989년에 원래 소유자의 후손에게 반환됨
-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글로우 웜을 관광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 가면 반딧불이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빛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생태관광 명소
- 지하 80미터 지점에서 튜브를 타고 지하 급류를 통과하여 반딧불이를 감상하는 블랙 워터 래프팅(Black Water Rafting) 등의 액티비티 동굴탐험 관광상품을 포함하여,
- 체험학습, 결혼식, 웨딩 패키지, 세미나, 크리스마스행사와 같은 기업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상품이 있음

○ 관련사진






□ 레드우드 수목원 (Redwood Treewalk) 시찰

■ (위치) 1 Long Mile Road/Tītokorangi Drive(access off Tarawera Road), Whakarewarewa, Rotorua, 3010, New Zealand
■ (구성) 산책로, 야간 조명 트리워크, Redwoods Alt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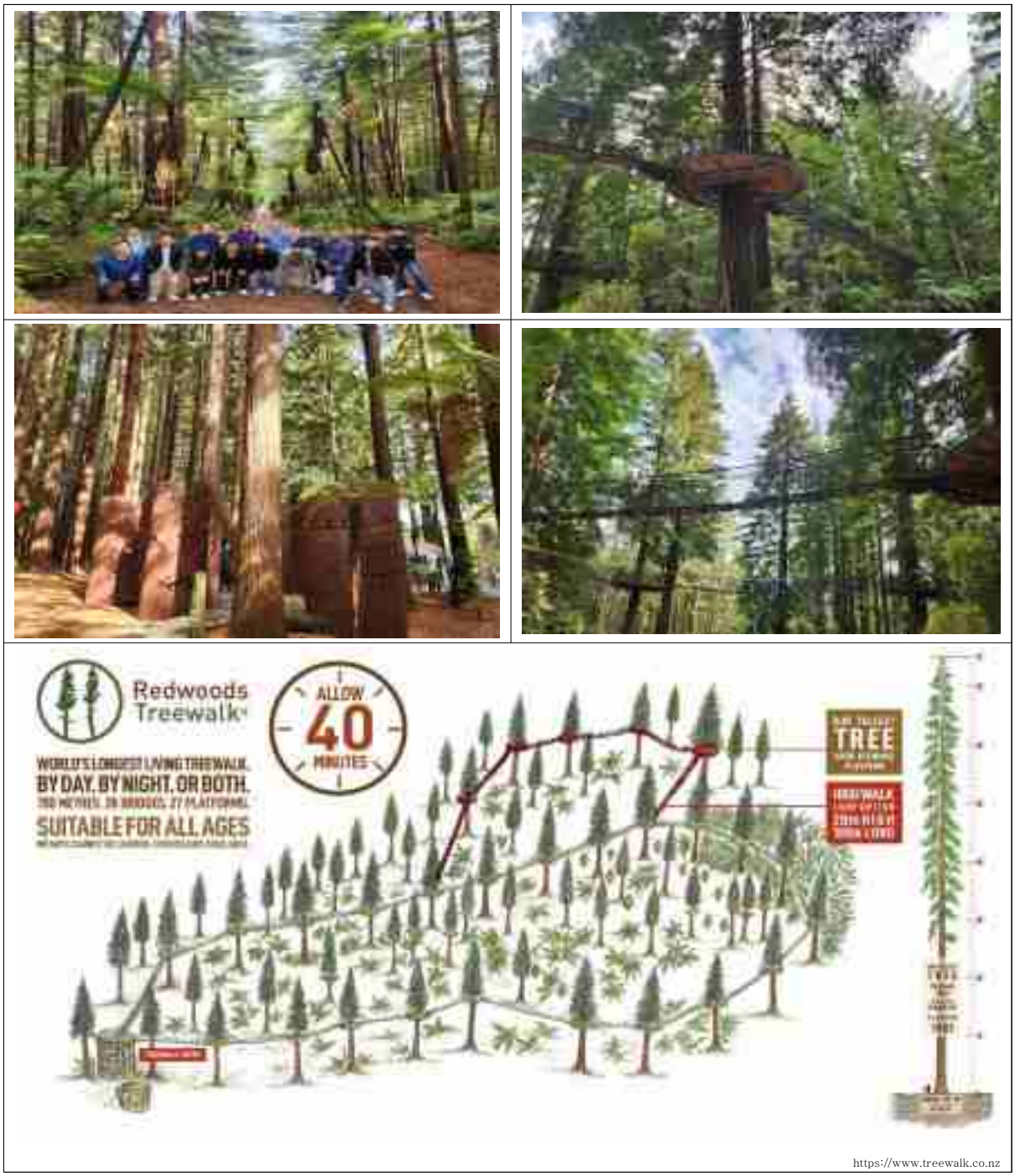
❍ 일　　시: 2023. 4. 16.(일) 09:00 ~ 12:00

❍ 내　　용

- 로토루아의 상징적인 레드우드 포레스트(Redwoods Forest)에 위치한 생태 관광지로, 100년 전 연료 등 미래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활용이 되지 않던 외진 곳에 조성된 인공 숲
- 2015년 말에 개장한 이래 Nightlights 도입으로 혁신을 계속해 왔으며, 2017년에 20m 높이로 지어진 새로운 두 개의 유리전망대에 서서 아래의 숲 바닥을 볼 수 있음
- 생태 관광 산책로는 길이가 700m로 28개의 swing bridge, 27개의 플랫폼에 걸쳐 있어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20년된 레드우드 나무, 9~20m 높이로 숲 아래와 나무 꼭대기의 독특한 조감도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됨. 산책로는 레드우드 나무나 기존 자연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건설되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유모차도 마련되어 있음
- 레드우드 야간 조명 트리워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데이비드 트루브리지(David Trubridge)가 디자인한 34개의 정교한 등불을 특징으로 하는 뉴질랜드 최고의 디자인 주도 관광 체험 중 하나
- Redwoods Altitude는 25미터 높이에서 25개의 인디아나 존스 스타일의 정글 다리를 따라 액티비티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됨. 나무의 검사 및 선택, 엔지니어링 및 건설, 가이드 교육 및 안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2016년 뉴질랜드 어드벤처 액티비티 규정(New Zealand Adventure Activity Regulations)에 따라 인증을 받음

- 매년 현지 엔지니어, 수목 재배자 및 현수교 구조물 전문가에 의한 외부 감사를 통해 나무의 상태와 구조적 무결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뉴질랜드 관광청의 공식 품질 보증 기관인 퀄마크(Qualmark)에서 매년 평가를 받음
- 지속 가능한 자재 조달, 폐기물 및 재활용 정책, 이식 프로그램을 통해 숲이 다음 세대에 걸쳐 즐기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관련사진



□ 헤리티지 팜 (Heritage farm) 시찰

- (위치) 171 Fairy Springs Road, Rotorua, New Zealand
- (프로그램) 농장투어, 3D 트릭아트 갤러리

○ 일　　시: 2023. 4. 16.(일) 14:00 ~ 17:00

○ 내　　용

- 1930년대 초부터 관광객들이 즐기고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전통적인 농장 투어를 되살리기 위해 개발되었음
- 농장 투어는 방문객들이 트랙터로 견인된 빨간색 트레일러를 타고 농장을 돌아다니며, 양, 소, 사슴, 타조, 알파카를 쓰다듬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실제 동물 농장으로, 농장 동물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
- 3D 트릭 아트 갤러리는 독특한 뉴질랜드 테마의 '트릭 아트' 갤러리로, 50개 이상의 트릭 아트워크가 고전 미술, 뉴질랜드 라이프 스타일, 도전, 판타지, 웅장한 자연 등 5가지 테마로 전시되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제시

○ 관련사진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Fiordland National Park) 방문자센터 방문 및 밀포드 사운드 (Milford Sounds) 시찰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센터 >>
- (위치) Fiordland National Park Visitor Centre Lakefront Drive Te Anau 9600
- (연락처) +64 3 249 7924
- (운영시간) 09:00 ~ 16:00

○ 일　　시: 2023. 4. 18.(화) 10:00 ~ 18:00

○ 내　　용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14개를 헤아리는 사운드(구불구불한 좁은 만)와 호수, 산, 숲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의 보고로 빙하가 조각된 피오르드의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

  ·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12,500㎢)이며,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국립공원으로, 198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됨 (1990년 어스파이어링 산(Mt Aspiring), 아오라키/쿡 산(Aoraki/Mt Cook), 웨스트랜드(Westland)를 포함시켜 '테 와히포우나무'라는 명칭으로 확대 지정됨)

  · 거대한 폭포와 협곡, 산과 호수, 밀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연평균 강우량이 6,000mm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습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풍부한 강우량 덕분에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길'이라는 밀포드(Milford) 트랙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인 타카헤(Takahe)의 서식처이기도 함.

  · 야생체험, 수상 택시, 헬리콥터, 호수 크루즈, 제트 보트, 카약, 사이클 트레일 등 다양한 액티비티 관광상품과 결혼식이나 기타 특별 행사 주최

- (밀포드 사운드)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랜드마크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며, 뉴질랜드의 피오르드 해안 중에서 유일하게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 수백만 년에 걸친 빙하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양쪽으로 1,200미터 이상 솟아 있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음
- 밀포드 사운드에는 레이디 보웬 폭포(Lady Bowen Falls)와 스털링 폭포(Stirling Falls)라는 두 개의 영구 폭포가 있으며, 폭우가 내린 후에는 임시 폭포가 흐름
- 바다표범과 최남단의 큰돌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포유류의 서식지이며, 피오르드랜드 펭귄의 번식지
- 연간 1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로, 크루즈, 카약, 다이빙, 스노클링, 트랙 하이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음

○ 관련사진



□ 마운트 쿡 국립공원 (Mount Cook National Park) 시찰

<< Aoraki / Mt Cook National Park Visitor Centre >>
- (위치) 1 Larch Grove Aoraki/Mt Cook
- (연락처) +64 3 435 1186

○ 일　　시: 2023. 4. 19.(수) 08:00 ~ 09:00

○ 내　　용

-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토와이제루가 가장 가까운 타운으로 65km 떨어져 있음. 공원 내에는 아오라키 마운트쿡 마을이 있으며, 직원과 가이드 등이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1953년 10월에 국립공원으로 정식 지정되었으며, 1990년 인근 국립공원들과 더불어 테와히포우나무(Te Wahipounamu)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됨
- 400종 이상의 식물, 100종 이상의 나무, 약 40종의 새 등이 서식
- 등산, 사냥, 트램핑/하이킹, 스키 투어로 유명. 공원내 화이트 호스 힐(White Horse Hill) 캠핑장이 있으며, 4개의 오두막이 기본적인 대피소에서 서비스 오두막에 이르기가지 다양함

○ 관련사진





□ 크롬웰 (Crom Well) 과일마을 시찰

○ 일　　시: 2023. 4. 19.(수) 09:00 ~ 10:00

○ 내　　용

- 크롬웰 마을(Crom Well Central Otago)은 클루타 강과 카와라우 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과수단지에 공급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수재배단지로 유명하며, 뉴질랜드 남섬 과일생산량의 약 40%를 생산
- 크롬웰 파머스 & 크래프트 마켓(Cromwell Farmers & Craft Market)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며 크롬웰 헤리티지 지구에 있음
- 크롬웰 문화유산구역, 센트럴 아트 트레일, 갤러리, 산책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온수 수영장인 리버 록 핫 풀(River Rock Hot Pools), 내리막 경주, 스카이다이빙, 제트보트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있음

○ 관련사진





□ 크라이스트처치 트램(Christchurch Tram) 체험

- (영업시간) 연중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탑승자격) 만16세이상　*만15세 미만 무료 이용이나 성인과 동반탑승 조건
- (탑승운임) 1일권 성인기준 25n$
- (운행간격) 매 15분 ~ 25분

○ 일　　시: 2023. 4. 19.(수) 14:00 ~ 14:30

○ 내　　용

- 아름답게 복원된 크라이스트처치의 문화 유산 중 하나인 전차 Tram

- 크라이스트처치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트램은 1882년 증기기관으로 운행 시작, 1954년 운행이 중단됐다가 1995년 관광 목적으로 재운영, 2011년 대지진 후 중단됐다가 재건, 2015년 재개통(연장 3.9km)함. 17개 정류장을 각기 다른 7대 트램이 경유하며 시내에 주요 관광지를 지나가며 트램과 곤돌라, 카누, 보카닉가든 투어 등과 결합 관광상품으로 운영 중
- 트램이 시가지와 카페거리 등을 오가면서 노상카페 옆을 바로 지나가고 일반 보행자들 사이사이로 운행
- 트램전용도로로 운영되면서 부터는 상가의 물건을 싣고 나르는 차량을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막았으며, 관광상품으로서 1900년 ~ 1930년대의 고풍스러운 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관련사진









□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Christchurch Cathedral) 시찰

■ (위치) Christ Church Cathedral, Christchurch Place, D08 TF98.
■ (연락처) +353 1 677 8099

○ 일　　시 : 2023. 4. 19.(수) 15:00 ~16:00

○ 내　　용

- 크라이스트처치의 상징적인 건물로 영국 고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1864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904년에 완성되었음
- 내부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으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에서 증정한 세례쟁반이 있음
- 종루에 있는 13개의 종은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St Paul's Cathedral)의 종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종루의 첨탑 높이는 63m로, 첨탑을 따라 올라가는 도중에 전망대가 있음
- 2011년 2월 대지진의 여파로 크라이스트처치의 랜드마크였던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의 첨탑과 탑 상부가 파괴되고 건물이 심하게 손상됨. 장미 창문이 있는 서쪽 벽이 심하게 무너졌으며, 아직까지 이전 모습으로 복원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 대성당 복원 프로젝트 소요비용은 1억 5,400만 달러로,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

<<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

■ 크라이스트처치는 영국 보다 더 영국 같은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로, 2011년 2월의 대지진으로 인해 빅토리아 풍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모두 쓰러지고, 도심부 또한 폐허 수준으로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 지진은 2012년 1월에야 완전히 끝났으며, 지진 여파로 인해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되고, 피해액이 약 12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었음. 현재까지도 크라이스트처치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7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대규모 복구사업을 통해 빌딩과 도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제공과 새롭게 정비된 주거환경이 기업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됨

○ 관련사진







□ 크라이스트처치 공공주택단지 방문 · 시찰

○ 일　　시 : 2023. 4. 19.(수) 16:30 ~ 17:30

○ 내　　용

- (전담기관 Kainga Ora) 뉴질랜드에서 공공주택개발, 패시브하우스, 오프사이트 제조(OSM) 등 건설혁신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방문
  · 약 2,000㎢에 주택을 제공, 저탄소, 고성능 주택 건설 지향
  · 전체 임대분야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약 70,000개의 부동산 관리
  · 200,000명(인구의 4%)의 뉴질랜드인에게 주택 제공
- 주택의 종류는 다양하게 독립형, 듀플렉스, 아파트, 계단식 주택 등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로 6층 이하의 높이로 건설되고 있었음.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세대 주택 형태의 주택으로 구성됨
-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신축 주택 중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75%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크라이스트처치를 포함한 캔터버리에서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건수로 전년대비 48% 급증, 단독주택은 소폭 증가 추세임

<< 참고자료 >>

		
아파트(주택수 6개)	아파트(주택수 5개)	듀플렉스(주택수 15개)

- (패시브 하우스) 뉴질랜드 기후 변화 2035를 위한 건물(building for Climate Change 2035)에서 제안한 최종 열 성능 한도를 업계의 기대보다 12년 앞당겨 충족시키는 속도로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편안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이라는 약속을 가장 먼저 이행하는 성능 기반 표준임. 이러한 주택은 스마트한 디자인, 고성능 건축 자재 사용, 열 회수 기능이 있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통해 자체 온도를 조절함
  - 뉴질랜드에서 패시브하우스는 새로운 개념으로, 더 저렴한 난방, 신선한 실내 공기질, 일년 내내 편안하고 건강한 온도를 제공하고 환경적으로는 운영상의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된 고성능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음

패시브하우스 특징	
1. 밀폐 구조 · 기밀 열 외피 · 침투의 최소 · 조인/접합 주변의 씰 **3. 기계적 환기** · 열 회수 기능이 있는 매우 조용하고 지속적인 기계적 환기 시스템 · 모든 객실에 신선하고 여과된 공기	**2. 단열재** · 특수 단열 프리캐스트 패널 구조 · 내부 라이닝에 절연 백업 석고보드 · 완전 단열 바닥 · 따뜻한 지붕을 만드는 SIP(구조적 단열 패널) **4. 고성능 창** · 열로 깨진 uPVC 이중 유리창

- 공공 주택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중립 및 기후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음(2021~2035년)



- (OSM 주택) 오프사이트 제조(OSM)는 뉴질랜드에서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더 빠른 속도로 제공하기 위한 건축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늘리고 있는 건설방법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오프사이트 제조(OSM)는 공장 외부에서 건물 및 건물 구성요소를 건설한 다음 필요한 현장으로 운송하는 방법임
  - OSM 건축 방법이 시장 출시 속도, 비용, 지속 가능성, 건강 및 안전, 기술 및 자재 부족과 같은 주거용 건설 부문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더 많은 주택을 효과적이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표준화된 부품, 대량 동의 및 빠른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비용절감, 기존 건축보다 최대 40% 빠르게 현장에서 주택을 완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오클랜드 Northcote 지역에 6층 아파트 1,600채 이상의 신규주택과 2개의 새로운 포켓 파크를 건설한 사례가 있음
  - 2021년까지 200채, 2022년까지 500채,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11,000채 이상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참고자료 >>





크라이스트처치 OSM 건설사례(참고자료)



오클랜드 Northcote 6층아파트(OSM)



OSM 스펙트럼

○ 관련사진





Kainga Ora 방문

공공주택 현장 방문

Ⅴ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교통 분야

■ 뉴질랜드 철도산업구조

○ 철도 인프라(선로,신호,전력 등)는 연방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KiWiRail이 소유 및 유지관리

○ 여객운송, 철도차량·역사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며 지방정부가 민간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

- 서비스수준, 운행빈도, 열차운행 시간표 등은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민간회사는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운송서비스 제공

※ 오클랜드의 경우 Veolia(민간)에서 운영중, 열차운행 횟수·요금 등은 지방정부에서 결정

○ 운송사업자는 단일 사업자이나 진입과정에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므로 잠재적인 경쟁효과 발생

■ 철도운영상 특징

○ 철도차량은 연방정부가 조달로 구매하고 지방정부가 소유, 노선 신설(건설), 개량(신호·선로) 등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KiWiRail을 통해 시설투자 수행 중

- 차량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와 KiWiRail 간 계약체결로 민간에 위탁

○ 지방정부는 운영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되 계약한 운임이외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은 지방정부로 귀속하며, 운영사 손실 발생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송서비스 지속 제공

- 철도운영은 기본적으로 적자구조(운임을 통해 보전되는 비용은 오클랜드의 경우 30% 수준), 나머지 비용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

※ 연방정부(교통세,유류세,도로이용료), 지방정부(주민세,재산세)가 보조금의 60%, 40%를 부담 → 향후 지방정부 부담분을 매년 1%씩 늘려 50:50 부담계획

■ 오클랜드 교통체계

◈ 오클랜드 지역 육상 교통전략(RLTS, Auckland Regional Land Transport Strategy, 2010-2040) : 장기교통전략

- 향후 30년 동안의 오클랜드 지역 교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계획으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51년까지 오클랜드 인구를 현재보다 2배 많은 2백 30만 명으로 예측하고, 승용차는 125만 통행, 대중교통은 6만 통행 등 204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부 전략 >

① 대중교통의 지속적 개선	② 토지이용과 교통의 융합
③ 교통행태의 전환	④ 기존 도로의 운영개선
⑤ 교통부하 감소	⑥ 환경영향의 저감

◈ 오클랜드 철도 운영현황

- 프랑스에 본사를 둔 Transdev의 자회사인 Transdev Auckland가 오클랜드 교통국과의 계약 하에 총 4개의 노선을 운영 중임
- 기본적으로는 2014년 운영을 시작한 AM Class가 전 노선에서 3량으로 운영되며, 오네항가 라인을 제외한 3개 노선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6량 병결하여 운영하는 편성도 존재함
- 파파쿠라-푸케코헤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전철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5,000V 교류 전력이 사용. 과거 비전철화 구간에서는 1970년대 영국에서 제작해 운행되던 디젤동차를 1990년대에 수입해와 2022년 최종 퇴역할 때까지 사용함. 현재 신형 전동차는 스페인 CAF에서 제작한 신형 전동차 도입 운영 중

◈ Britomart 교통센터: 오클랜드 교통정책의 핵심시설(주요 교통 허브)

-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중앙 비즈니스 구역 그리고 북부 말단 북섬 주요 간선 철도선과 통합 버스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허브로 다중이용 복합건물
- 2000년대 초 창립 당시 도시재생 성공모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최대의 교통 프로젝트였으며, 오클랜드 지속가능교통계획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 오클랜드 대중교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버스는 현재 CityLink(Red버스), InnerLink(green버스), OuterLink(amber버스), TāmakiLink(Blue버스)가 운행 중에 있음. 브리토마트(Britomart) 교통센터는 2003년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건립되었고, 도심 페리터미널이 근접 입지함으로써 철도역과 버스, 페리이용객이 모두 편리하게 환승하고 있으며 철도를 이용하여 도시의 CBD에 더 가깝게 이동시켜 오클랜드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에 크게 기여
- 브리토마트 교통센터는 오클랜드 도시재생의 중심이 된 시설로 적절한 시설설치와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어떻게 높이고, 충분한 시민참여와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건축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교통정책은 자연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탄소배출 저감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다변화 및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인천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트램은 지상에서 승·하차가 가능하여 고령화시대에 교통약자를 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기능 강화 및 자가용 이용 억제 등 도로 혼잡 문제를 개선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 세계 약 400개 도시에서 2,300여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최근 30년간 약 45%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약 180개 도시에서 추가 도입 예정

* 출처: UITP(세계교통협회), 2019.10.

☞ 트램은 도시를 바꾸는 도시 프로젝트로 송도 트램 및 부평연안부두선 추진 시 도시, 경관, 교통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객차 구성에 있어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야외 관망이 가능하게 설계하는 등 관광과 접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 분야

○ 뉴질랜드 도시재생은 장기계획과 다양한 관점의 실행계획,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 사회, 문화 및 경제적 결과에 목표를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음

○ 오클랜드 비아덕트 하버(Viaduct Harbour)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시설물들에 대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 디자인함으로써 지역의 건축자산을 지키고 건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 수변공간을 정돈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도서관, 야외 시네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창출함으로서 현지인들과 외부인들의 관광명소가 된 것과 같이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윈야드 크로싱(도개교) 사례와 같이 기능성과 상업성이 있는 건축물을 디자인(건설)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해 자원 효율화 문제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빗물처리 및 재사용을 위한 하수도 처리 설계 및 폐수 펌프장 운영, 그리고 폐기물 감소를 위한 혁신적인 설계・시공・관리기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 주택정책의 경우 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세제 규제 등 투자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주택건설에서도 저탄소 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에너지와 건강 및 안락함 등 주택의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홈스타 제도와 커뮤니티 인프라에서 노인과 아동을 우선 고려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추진됨

○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오프사이트 제조방식을 적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로 단독주택, 다세대 형태의 주택을 선호하는 뉴질랜드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패시브 하우스는 전 세계적인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분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성능 건축 자재 사용, 열 회수 기능 향상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인천시도 원도심 및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공법을 도입하고, 신소재 스마트 그린 자재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투자유치 분야

○ 2015년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업체 수는 2022년 2,370개에 달함

○ 1차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취약한 뉴질랜드에 인천시 공산품 제조업체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가 주도하여 뉴질랜드 현지의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을 활용한 수출상담, 지사화, 박람회 개최 등 해외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우리나라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 5,003백만 달러, 서비스업 23,570백만 달러이며,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 신고액은 18,528천 달러*로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뉴질랜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권 강화를 위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가임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주요국가의 대도시들과 인접해있는 동북아 중심지로써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뉴질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탁월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관광랜드마크 분야

○ 뉴질랜드 관광객 수는 2017년 이후부터 매년 4.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에는 전체 관광객 수가 5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현지 소비지출 역시 2017년 대비 39.7 % 증가해 2024년에는 9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출처: KOTRA

○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이를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레포츠 산업을 연계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인천의 해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407천 명에 달하였음. 인천은 168개의 섬과 강화 갯벌, 소래포구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 보전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 및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MZ세대 유입을 위한 다양한 레포츠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식당, 카페 등 관광편의시설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뉴질랜드 곳곳에는 사슴과 연어 등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색을 살리고, 뉴질랜드 전통인 마오리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테마 등을 발굴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k-관광마켓(전통시장) 10선'에 선정된 신포국제시장을 비롯한 60개 전통시장을 시장별 맞춤형 특화상품 및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문화행사와 결합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시장별로 특색을 살리는 상징물 설치 등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 인천대공원, 송도 센트럴파크,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은 공원별 특화주제와 프로그램 개발, 독창적인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며, 강화군 등 관내 농장, 화원, 과수원 등은 농가 수익 증대 및 힐링 학습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